

교회의 회복

(금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4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에 묘사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城)인 교회의 회복

성경: 스 7:6-10, 21, 27-28, 8:21-23, 10:1,
느 1:1-11, 2:4, 10, 17-20, 3:1-6, 4:4-5, 9, 5:10, 14-19, 8:1-4, 8-9, 14

- I. 이스라엘 자손의 남은 이들이 성전과 성을 재건하기 위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회복된 것은, 교회의 남은 이들을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오늘날의 분열과 혼돈에서 나와서 하나라는 원래의 터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회복을 상징한다 — 계 17:1-6, 18:2, 4상.
- A. 하나님의 백성은 바빌론에서 나와서 하나라는 유일한 터로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 신 12:5, 11-14, 시 133편, 계 1:11.
- B. 좋은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 엡 3:8, 갈 3:14, 신 8:7-10, 골 1:12, 2:6-7.
- C. 교회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있다 — 엡 4:11-16, 고전 3:9-17.
- D. 교회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실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왕국 생활을 하고 있다 — 롬 14:17, 5:17, 비교 마 5:3, 8, 6:6, 14-15, 20-21, 7:13-14.
- E.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으려는 그분의 원래의 의도를 성취한다 — 창 1:26.
- II. 주님은 그분의 회복을 강화하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에스라를 일으키셨다 — 스 7:6-10.
- A.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그러한 사람이었던 에스라는 그 필요를 채울 역량을 갖고 있었다 — 스 7:21.
1. 제사장은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으로 적셔진 사람이다. 에스라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이었다 — 스 8:21-23.
 2. 에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갈망과 경륜을 아는 사람이었다 — 스 7:27-28, 10:1.
 3. 에스라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접촉함으로 그분과 하나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율법 조문만을 아는 율법학자가 아니라 제사장 겸 율법학자였다 — 느 8:1-2, 8-9.
 4. 에스라는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가 말한 것은 모세가 이미 말한 것이었다 — 스 7:6, 느 8:14.
- B.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서 에스라들, 즉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제사장 겸 교사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이 주님의 회복 안에서 교사가 될 자격이 있다 — 마 13:52, 고후 3:5-6, 딤펢전 2:7.

- C.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진리들로 그들을 교육하여 그들을 재조성했다 — 느 8:1-4, 8.
1.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이 땅에서 그분의 증거가 될, 신성하게 조성된 한 백성을 가지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증거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되어야 했다 — 사 49:6, 60:1-3.
 2. 포로 상태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제멋대로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바빌론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 조성에 있어서 바빌론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 a. 바빌론적인 요소가 그들 안으로 일해 넣어져 그들의 존재를 조성했다 — 숙 3:3-5.
 - b.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들이 된 후에 재조성되는 것이 필요했다.
 3.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 따른 문화, 곧 하나님을 표현하는 문화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가르침과 재조성이 필요했다. 이러한 문화 안으로 들어가려면 많은 교육이 있어야 한다 — 느 8:8.
 - a. 이 점에서 에스라는 아주 유용했는데, 이것은 그가 하늘에 속한 신성한 조성과 문화의 총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 느 8:1-2.
 - b.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만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 하나님을 알도록 도울 수 있었다 — 느 8:8.
 4.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며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었다 — 시 119:2, 9, 105, 130, 140.
 - a.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넣음으로써 그들을 교육하여, 말씀으로 적셔지게 하는 것이다 — 골 3:16.
 - b.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행할 때,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영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신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재조성된다 — 딤후 3:16-17.
 5. (예표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 재조성된 결과, 특별한 나라 즉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고 분별되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나라가 되었다 — 사 49:6, 60:1-3, 숙 4:2.
 - a.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께서 고려하시는 것들과 하나님의 온 존재가 그들 안으로 옮겨 부여졌다. 이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재생산으로 만들었다.
 - b. 이러한 종류의 신성한 조성에 의해, 모든 사람이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신성한 특성을 표현하는 신성한 나라가 되었다 — 벰전 2:9.
 - c. 돌아온 포로들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도록 개인적으로 그리고 단체적으로 재조성되었다.
- D.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는 에스라들, 즉 정화하는 일을 하고 신성한 진리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함으로써 그들을 조성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거, 곧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는 이들이 필요하다 — 딤후 2:2, 15, 딤편 3:15.

III. 느헤미야기의 증점은 벽이 있는 예루살렘성이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보호했다는 것이다.

- A. 하나님의 집의 재건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를 회복하시는 것을 예표하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회복하시는 것을 예표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을 건축하시는 것과 그분의 왕국을 건축하시는 것은 함께 이루어진다 — 마 16:18-19.
- B.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기 위한 통치의 중심인, 확장되고 강화되고 건축된 교회이다. 결국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집은 그분의 영원한 처소이자 그분의 영원한 왕국의 통치의 중심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된다 — 계 21:2-3, 22, 22:3.
- C.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릴 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갖는다. 우리가 더 나아가 그분의 머리의 권위를 깨달을 때, 그 집은 하나님의 왕국인 성으로 확대될 것이다 — 엡 1:22-23, 4:15, 계 22:1.
- D. 느헤미야의 진취성은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진취적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1.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지도자들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롯의 순수하지 않은 증가에서 나온 이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고 멸시했다 — 느 2:10, 19, 비교 겔 25:3, 8.
 2. 이러한 반대자들의 조롱과 멸시와 비난에 대해, 느헤미야는 매우 순수하고 진취적이었으며 겁내지 않았다 — 느 2:17-20, 3:1-6, 비교 행 4:29-31, 살전 2:2, 딤후 1:7-8.
 3. 진취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는다. 느헤미야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고, 이러한 동맹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 행 26:21-22.
 4. 느헤미야의 진취성은 그의 인간 행동의 미덕이었으며, 우리의 타고난 역량과 능력과 미덕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쓸모가 있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 안으로, 곧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 안으로 이끌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5. 느헤미야는 자신의 타고난 사람 안에서 살지 않고 부활 안에서 살았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인도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본이었다. 그는 진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비교 느 2:1-8), 그의 진취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 a.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룩한 땅과 (교회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을 포함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을 또한 사랑했다 — 비교 딤후 3:1-5.
 - b.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서 느헤미야는 교통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 또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에 따라 기도했다 — 느 1:1-11, 2:4, 4:4-5, 9.
 - c.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까지 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었다 — 느 5:19, 비교 고후 5:20.
 - d. 백성과의 관계에서 느헤미야는 이기심이나 사리사욕이 없는 완전히 이타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언제나 기꺼이 희생하고자 했다 — 느 4:18, 5:10, 14-19, 13:27-30.

- E. 거룩한 성의 크고 높은 성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권익을 보호하며,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1. 성벽의 기능은 성을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하여, 즉 거룩하게 하여 그 성을 거룩한 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 계 21:2상, 10하, 벰전 1:15-16, 고후 6:14-7:1.
 - a.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며, 성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단장된다 — 계 21:18-20.
 - 1) 우리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리스도(벰전 2:4)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람으로써 보석들(고전 3:12상)로 변화된다.
 - 2) 보석들은 변화를 가리킨다. 우리는 변화될수록 더욱더 분별된다 — 롬 12:2.
 - b. 그 영의 변화시키시는 일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진행되는 동안, 변화된 보석들인 우리는 기초들이 있는 완전한 한 성벽이 되기 위해 함께 건축되어 간다 — 고전 3:6-12상.
 2. 성벽의 기능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신성의 풍성의 권익과 그리스도께서 완결되심으로 달성하신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보호를 위해 성경 말씀에 있는 순수한 진리를 해방해야 한다 — 비교 요 17:17.
 3. 성벽의 기능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양은 벽옥과 같고, 벽옥의 성벽은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성 전체가 하나님의 모양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 계 4:3, 21:18.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진리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는 장로들의 책임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서 장로들의 주된 책임은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성경은 장로의 자격 중 하나가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딤후 3:2).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장로들은 직업을 갖지 않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할 수 있으며, 교회의 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다(5:17-18). 그러나 나는 어떤 장로들은 진리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심지어 특정한 문제가 진리의 항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보았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점검해 보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진리인가? 아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은 필요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실행을 가져야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진리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침례와 장로회와 발 씻는 것과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은 진리이다. 거듭남, 거룩하게 됨, 새롭게 됨, 변화됨, 같은 형상을 이룸, 변형됨, 신격이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됨은 모두 진리이다.

어떤 장로들은 주님을 부르는 것과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과 그 영을 끄지 않는 것과 신언을 떨치지 않는 것 등 생명의 실행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성도들에게 진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만일 이러한 장로들이 거룩하게 됨에 관해 질문을 받는다면, 그들은 단지 거룩하게 됨이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만일 그들이 거룩하게 됨과 새롭게 됨의 차이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그들은 그 차이를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모든 장로들은 진리를 알아야 하고,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장로들은 진리를 배우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것은 장로들의 의무요 책임이다. 장로 직분에 임명된 사람은 누구나 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모든 장로들과 동역자들은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의 말씀에 능숙해야 한다.

온 땅에 하나의 커다란 기근이 있음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커다란 기근이 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든 개신교든 진리의 가르침이 매우 적다. 많은 곳에 진리 대신 미신들과 이교도적인 실행이 있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에는 진리가 매우 적다. 나는 이것이 진리로 가득한 우리의 출판물이 그곳에서 매우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라고 믿는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출판물을 사랑한다. 이러한 출판물들은 처음 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성경 전체를 다룬다.

하늘에 속한 진리로 백성을 조성할 수 있는 에스라들이 필요함

니 형제님과 나는 말씀에 능숙하게 되도록 말씀을 배우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배운 많은 것들이 인쇄되었다. 우리는 성경의 라이프-스타디를 거의 완성하였으며, 우리가 결정 연구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단지 스룹바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에스라들이 필요하다. 장로들이 진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심방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내린 결정에 성도들이 따를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참된 장로 직분은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장로 직분은 성도들을 심방하여 그들을 목양하고 먹이며, 진리에 관하여 말함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며, 하늘에 속한 진리들로 사람들을 조성할 수 있는 에스라들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풍성의 예표들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많은 방면에서 여전히 매우 부족하지만, 그분께서 자신을 위하여 그분의 회복을 그분의 풍성과 함께, 온 땅의 이천여 도시들로 확산시키셨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감동되었고, 일어났고, 올라갔으며, 오천사백 개의 금, 은그릇들을 가져왔다(스 1:7-11). 이 그릇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다가 그의 신당들에 두었던 것들이었다. 포로 상태로부터의 일 차 귀환 동안에 이 모든 그릇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졌다. 그 그릇들은 그리스도의 풍성의 예표들이다. 나는 이 나라에 온 후로 그리스도의 풍성에 관한 메시지들을 전했으며 또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관한 찬송 시를 썼다(찬송가 403장).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다만 그리스도의 풍성이 아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말한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린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그분의 회복 안에서 움직이심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움직이고 계신다. 그분의 말씀은 성경에 있지만, 이 성경은 합당한 해석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해석은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들에서 발견된다. 동역자들과 장로들이 우리의 모든 출판물들을 연구한다면, 주님의 회복 안에는 사람들을 하늘에 속한 진리들로 조성할 많은 에스라들이 있게 될 것이다.(*에스라 라이프 스타디*, 5장, 36-39쪽)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를 재건함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옴

재조성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느 8장).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하자. 만일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재조성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기질과 습관적인 행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재조성하실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차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꾼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과 하나이다(엡 6:17).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운행할 때, 말씀을 통하여 그 영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요소와 함께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신다. 우리는 그러한 분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재조성된다.

바빌론에서 포로로 있던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빌론에서 태어났으며 바빌론에서 자랐다. 바빌론적인 요소가 그들 안으로 일해 넣어졌고, 그들 존재 안으로 조성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온 후에 재조성되는 것이 필요했다. 에스라는 이 시점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매우 유용하였다.

한 사람의 조성은 한 나라의 조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준다. 합당한 나라는 조직일 뿐 아니라 하나의 조성이다. 이것은 한 나라의 군대에서 특히 그러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군대는 많은 요소들로 조성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개개인의 군인들이 군대의 일부로 재조성되는 길을 마련해 준다. 따라서 군대는 단지 조직만이 아닌 하나의 조성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신성하게 조성되어 그분의 간증이 되는 사람들을 땅 위에 소유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되어야 한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한 나라가 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 집합적으로 조성되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모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그들에게 읽어 달라고 함**

느헤미야기 8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따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모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그들에게 읽어 달라고 하였다. 에스라는 이를 행하고, 크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였으며, 온 백성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것은 반역적인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고 또 완전히 굴복되었음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의 존재 안에 분배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으로 조성되게 하기 위한 견고한 기초이다.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성한 조성의 방식에 따라 함께 모이는 것이다.

재조성되기 위해 우리는 성경 육십육 권을 거듭거듭 읽어야 한다. 육십여 년 이상 말씀을 읽어 온 사람으로서 나는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하여 재조성되었다고 증언할 수 있다. 매일 나는 조금씩 더 재조성된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에게
그날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히 분별하도록 명함**

총독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그날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히 분별하고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는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기 때문이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명절을 지내며, 기쁨으로 찬양하여 명절을 지내라고 명했다. 백성들은 말씀에 의해 설복되고 굴복되어 그들이 범죄한 것을 깨달았으므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다(느 8:9-10상).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

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10하절)라고 말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12절).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모임

이튿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모였다(느 8:13).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통찰력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 누가 성경 말씀을 꿰뚫는 참된 통찰력을 갖고 있는가? 느헤미야기 8장 13절에서 ‘통찰력(insight, 한국어 성경에서는 ‘밝히 알고자 하여’로 번역됨—역자 주)’은 내재적인 의미를 가리킨다.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의 내재적인 의미를 보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느헤미야기 8장 14절부터 18절까지는 그들이 율법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곱째 달 절기(초막절) 동안 초막에 거하며 그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산에 가서 올리브나무 가지와 다른 나무의 가지들을 가져다가 초막을 만들도록 명하셨음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온 회중이 이처럼 칠 일 동안 큰 기쁨으로 행하였고, 에스라는 매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다. 여덟째 날에는 규례에 따라 성회를 열었다. 이것은 그들이 계명들과 율례들(계명들에 대한 보충)과 규례들(심판)이 있는 완전한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을 행했음을 가리킨다. 그들은 부흥을 갖게 되었으며,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조성된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

느헤미야의 특별한 성격

귀환한 포로들의 인도자들 중 한 사람인 느헤미야는 어떤 특별하고 남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합당한 태도와 행동을 지닌 유쾌한 사람임

왕의 술 시중을 드는 사람인 느헤미야는 상냥하고 유쾌했으며, 그의 태도와 행동은 항상 합당하였다. 그는 왕 앞에서 결코 슬퍼한 적이 없었다(느 2:1하). 만일 느헤미야가 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유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왕은 그가 술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 계속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과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을 사랑한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그분의 경륜에 관하여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을 사랑하였다. 이 권익은 좋은 땅과 성전과 예루살렘성을 포함하며,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사랑하였다. 비록 그는 왕이나 군대 장관과 같은 지위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을 돌보았다.

교통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기도한 사람

느헤미야는 교통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과 그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울고 근심하였으며, 금식하고 기도하였다(느 1:2-4). 느헤미야기 1장 11절에서 그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그가 왕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다. 왕이 그의 요구에 관하여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였다’(2:4).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부담을 그의 어

께에 두셨지만, 이 부담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느 2:8, 18), 그를 기억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였다(5:19, 13:14, 31).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얻으시기란 쉽지 않았다. 그의 지위와 직업은 매우 비천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익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기도했으며, 교통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의 특별한 성격이었다.

전혀 이기적이지 않음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느헤미야는 전혀 이기적이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기심이 전혀 없었다. 비록 그가 유다 총독, 즉 사실상 페르시아왕을 대표하는 유다의 대리 왕이라는 높은 지위를 얻었지만, 그는 자신을 위하여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았다. 느헤미야에게는 자기를 관심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는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항상 기꺼이 바쳤다. 그는 총독이었지만, 성벽 건축이 백성에게 무거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므로, 십이 년 동안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았다(느 5:14-18). 그는 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기를 원하지 않았다. 보수를 받기는커녕, 그는 백오십여 명에게 생필품을 제공하였다.

느헤미야는 또한 대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야간 보초에 참여했다(느 4:17-23). 그는 이러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몸소 그들 가운데 참여하였다.

정욕에 빠지지 않음

느헤미야의 결혼 생활에 관하여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은 아주 주목할 만하다. 나는 느헤미야가 사사들이나 왕들과는 대조적으로 오직 한 아내만을 두었다고 믿는다. 그는 정욕에 빠지지 않았다. 다윗과 솔로몬은 둘 다 이 방면에서 방종하였다. 정욕에 빠짐은 다윗 가문의 부패의 주된 요인이었으며, 다윗과 그의 후손이 왕국을 상실하게 된 배후의 주된 요인이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전혀 달랐다.

내가 믿기로, 육천 년 인간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은 결코 없었다. 느헤미야에 대해 백성들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겼으며 그에게 감사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뛰어난 장로, 곧 장로가 마땅히 어찌해야 하는가에 대한 최상의 본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나는 오늘날 교회들 안의 모든 장로들이 느헤미야와 같기를 바란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에스라에게로 갔다

느헤미야는 한 나라의 우두머리요 통치자였지만 전혀 야심이 없었다. 이것은 그가 에스라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으로 유명한 에스라가 여전히 살아 있었고, 느헤미야는 도움을 받기 위해 기꺼이 에스라에게 갔다. 오늘날 많은 인도자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들은 야심만만해서, 그들의 위치를 고수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에스라를 데려오지 않는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야심이 없었으므로, 에스라를 데려왔다. 느헤미야는 에스라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재조성을 위한 재교육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재교육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하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사백 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다. 그 세월 동안 그들은 분명 이집트의 학식으로 조성되었을 것이다. 그 후 그들은 칠십 년 동안 바빌론으로 끌려가 거기 있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모두 바빌론에서 태어나 자랐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서 돌아온 후,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혼합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 바빌론 사람, 가나안 사람의 문화로 조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해 돌아왔다. 그러나 이집트와 바빌론과 가나안의 문화로 조성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사람의 표현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한 백성은 하나님-사람들이 아니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교육되는 것이 필요했다.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거가 됨

재교육되는 것에 더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과 아주 동일한 방식으로 양육될 필요가 있었다. 부모는 자녀들을 교육시킬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들 자신, 거의 그들 전 존재를 자녀들 안으로 넣어 준다. 부모는 그들의 어떠한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자녀들 안으로 주입시킨다. 결국 이것은 그 자녀들을 그들의 어떠한과 동일하게 조성시킨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혼돈 가운데 있었다. 제사장들의 임무는 분명하지 않았고 누구도 레위인들과 섬기는 이들을 돌보지 않았다. 노래하는 이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이 노래하도록 그리고 무리를 이루도록 길을 열어 주지 않았다. 에스라의 도움으로 느헤미야는 나라를 완전히 재건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 즉 하나님께 거룩하게 분별되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고려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한으로 주입되어 하나님의 재생산이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종류의 신성한 조성으로 인해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땅 위에서 신성한 특성을 표현하는 신성한 나라가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해 개인적으로와 단체적으로 재조성되었다. 돌아온 포로들은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서 이루어진 재조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다.

느헤미야로 끝나는 회복의 책들은 합당하고 적절한 인도 직분의 문제를 중심적이고 중요한 요점으로 다룬다. 사사기와 사무엘기상하와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에 있는 인도 직분의 기록은 어두운 반면,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에 있는 인도 직분의 기록은 밝다.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에는 세 명의 인도자들, 곧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언급되어 있다. 그들은 모두 뛰어난 인도자들이었지만, 느헤미야가 가장 좋고 가장 높았다. 느헤미야는 완벽한 인도자요,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인도자였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인도 아래에서만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백성, 곧 땅 위의 하나님의 표현인 하나님의 증거로 재조성될 수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가진 교회의 예표이다. (*느헤미야 라이프 스타디*, 3장, 18-21쪽, 5장, 31-36쪽)